

# 동성고 출신 김원중 '삼손 머리카락' 잘라 소아암 환자 돕기

매년 모교서 시즌 준비...후배들과 훈련하며 동기 부여  
"가을잔치 마지막 순간 지키는 게 꿈...팬들 합성 그리워"

지난 1월 광주 동성고는 야구계의 핫플레이스였다.

동성고 출신은 물론 지역·출신 상관없이 많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발걸음이 이어져 'KBO리그 훈련 캠프'를 방불케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롯데 자이언츠의 '마무리' 김원중이었다.

2012년 동성고를 졸업하고 롯데 유니폼을 입은 김원중은 지난해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선발에서 마무리로 변신한 그는 58경기에 나와 3.94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5승 3패 25세이브를 기록했다. 우려의 시선도 있었지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롯데의 뒷문을 지키며 주목을 받았다.

'긴 머리'로도 화제를 모았다.

김원중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마운드로 달려나와 강렬한 눈빛으로 타자들과 기싸움을 벌이곤 했다.

장발의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던 김원중은 시즌이 끝나고 머리카락을 잘라 소아암 환아들을 돕는 봉사단체인 '어머니 운동본부'에 기부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소아암 환아 돕기 김원중 후드 티셔츠 판매 수익금 25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원중은 "이 세상의 모든 여자분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머리를 자르면서 '한 시즌이 끝났구나', '잘 보냈구나', '이제 준비 시간이 좀 짧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웃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머리 기르기'. '장발'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데는 나름의 뜻이 있었다.

김원중은 "기부를 위해 머리 기른다고 했으면, 만약 야구를 못하면 머리를 잘라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말은 뱌어놓고 그렇게 자르면 창피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말을 아꼈다. 승리를 지키듯이 머리를 지켜내서 좋은 일 할 수 있게 됐다. 동기부여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싶었던 김원중은 기부 순간에도 고민했다.

그는 "조용히 기부하려고 했는데 상의를 해보니 이를 알리면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 관심을 갖고 돕는 계기가 될 것 같았다. 많은 이슈가 된 것 같다. 다음에는 야구 할때 야구로 화제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학창초-동성중-동성고 출신인 김원중은 모교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모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는 그는 매년 겨울 동성고를 찾아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자신은 '초심'을 찾는 시간이고, 후배들에게는 '꿈'을 키우는 시간이다.

김원중은 "어릴 때 (양)현종이 형이나 다른 선배들이 오면 나도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다. 저 선배처럼 프로 가서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며 "동성고에 오는 큰 이유는 초심을 찾으려는 것이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동생들에게서 배우려고 모교를 찾게 된다. 매일 오면서 얼굴도 익으니까 후배들에게 눈길이 더 가게 된다.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팀에서 같이 호흡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하고 후배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고 설명했다.

동성고 시절 잦은 부상으로 고생을 많이 했던 김원중. 그래서 더 몸 관리에 신경 쓰고 '야구'를 먼저 생각한다.

김원중은 "지금처럼 비슷한데 몸이 좀 약해서 부상과 복귀를 반복하는 등 기록이 있는 선수였다"며 "아파서 힘든 시간도 있었던 만큼 몸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야구 하는 동안은 몸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쪽에 먼저 시간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체력'에 대한 부분을 더 생각했기 때문에 스프링캠프에 앞서 부지런히 달음

틀었다.

시즌 막판 힘든 시간을 겪기도 했지만, 김원중은 "오히려 잘 됐다"며 실패를 교훈 삼아 더 강한 마무리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원중은 "슬럼프와 고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터득했다는 게 성과라고 생각한다. 올 시즌 그런 부분 보완해서 더 꾸준하게 시합을 하면 된다는 것을 배운 해였다"고 2020시즌을 돌아봤다.

선발에 익숙했던 김원중이지만 두려움 없이 시작했던 마무리였다.

김원중은 "걱정 안했다.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르다고 하면 다르지만, 선발 경험이 도움이 됐다"며 "사실 마무리투수와 선발은 비슷하다. 선발 투수가 5이닝 못채우면 바꾸지 않는다. 마무리 투수도 역전당하지 않으면 안 바꾼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 집중한다. 집중할 때는 더 집중하고, 신중하되 과감하게 해야 한다. 답은 없다. 하다 보면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으니까 또 한 번 부딪혀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코로나19로 텅 빈 관중석을 마주하고 경기를 하는 게 김원중에게는 큰 아쉬움이었다. 올 시즌 팬들의 합성을 들으며 야구를 하는 게 그의 바람이다. 그리고 늘 머릿속에 그리는 간절한 '마지막 순간'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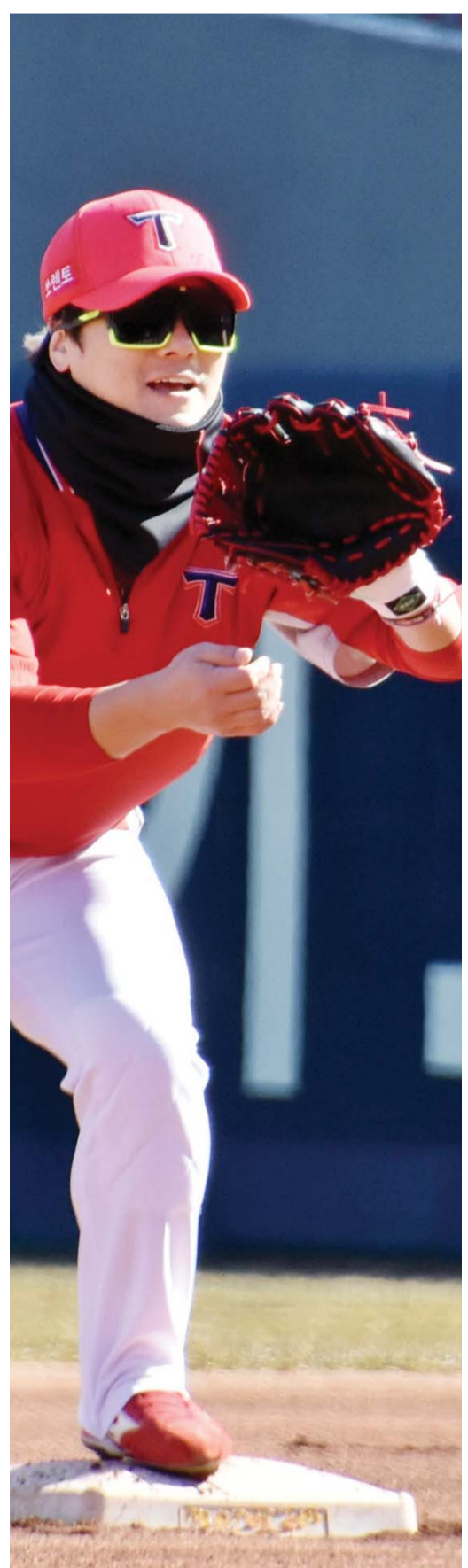
김원중은 "팬들 있어야 더 재미있고 힘도 나고, 스피드가 1-2km라도 더 나온다. 지금도 (관중)이 야기하니까 전율이 들는 데 올 시즌에는 다 같이 함께하는 야구장이 됐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다"며 "한국야구가 끝나는 날, 마지막 마운드에서 있는 걸 항상 생각하고 그 꿈을 가지고 살고 있다. 마지막에 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다. 육해서도 되니까 잘할 때는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학생 선수들이 잘 되고 해야 프로야구 큰 발전도 있는 것니까 학교 후배들도 관심 가지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1월 광주 동성고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롯데 마무리 김원중.



김선빈

## '타격 천재' 김선빈의 수모(?)

최상의 컨디션으로 캠프 소화

클린업 트리오 진입도 가능

최형우 "넌 똑딱이라서 안돼"

윌리엄스 감독, 타순 즐거운 고민

KIA 타이거즈의 '타격 천재' 김선빈은 어디로 가야 할까?

건강한 모습으로 캠프에 참가하고 있는 김선빈은 윌리엄스 감독에게 '즐거움 고민'을 선물하고 있다.

김선빈은 작은 키에도 남다른 타격 실력을 갖춘

'타격 천재'다. 2017년 0.370의 타율을 찍으며 타격왕 타이틀을 차지했다.

지난 시즌 부상이 이어지면서 85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김선빈은 남다른 타격 실력을 보여주며 윌리엄스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김선빈이 서는 내야는 타커가 1루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으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혼돈의 내야에서 사실상 2루만 김선빈의 자리로 점찍어진 가운데, 그의 타순은 알 수 없다.

김선빈은 강한 2번으로 손색 없지만 지난 시즌 타커가 2번에서 좋은 활약을 해줬다. 타커-최형우-나지완이 지난 시즌 활약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김선빈이 5번에서 또 다른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구상이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타점'에 욕심이 나는 김선빈에게도 5번은 솔깃한 자리. 하지만 김선빈은 9월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최)형우 형이 반대 하더라"고 웃었다.

김선빈은 "전날 워밍업을 하면서 타순이야기가 나왔다. 형우 형이 '최다타점을 하고 싶다'고 하길래 나도 '안 지겠다며 5번을 쳐야겠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형우 형이 반대했다. '한방이 있는 선수가 5번을 쳐야 한다. 너는 똑딱이지 않느냐'고 하더라"며 웃었다. '단타' 위주 선수라는 농담이다.

이어 "주자를 모아냈을 때 3, 4번이 빠르지도 않는데 네가 단타를 쳐서 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며 절대 반대라고 했다"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3·4번의 느린 발 때문에 쉽지 않은 5번이지만 윌리엄스 감독은 타순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조합을 구상하고 있다.

김선빈은 타순·자리 상관없이 건강하게 제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김선빈은 "몸 상태는 좋다. 제 주도에서 후배들과 재미있게 훈련을 했다. 감독

님, 트레이너분들이 스케줄 짜주셔서 웨이트에 중점을 뒀다. 하체에 비중을 두고 웨이트와 프로그램

을 진행했다"며 "예전에는 어깨가 다시 풀리는 데 시간이 걸려서 캠프 중반부터 공을 던졌는데 지금은 빠르게 하고 있다. 어깨도 괜찮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김선빈을 괴롭혔던 허벅지도 문제없다.

김선빈은 "다리는 괜찮을 것 같다. 괜찮아야 한다"며 "안 다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루수 골든글러브가 목표다"고 말했다.

어느새 14년 차 중견 선수로 된 만큼 나이에 맞는 역할도 할 생각이다.

김선빈은 "책임감, 부담감도 있다. 중견이 되다 보니까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부분도 있고 형우·주환·지완이 형 받쳐서 중간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 내 포래들이 많은데 같이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베리 굿~" KIA 불펜에 쏟아진 찬사

이의리 등 8명 이틀간 피칭 점검

윌리엄스 감독 "전체적으로 흡족"

KIA 타이거즈의 불펜에서 'Really Good', 'Very good' 찬사가 쏟아졌다.

챔피언스필드에서 스프링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KIA는 지난 8일 본격적인 기술훈련을 시작했다. 이송재, 박건우, 장민기, 이의리 등 '루키 4인방'을 시작으로 불펜 피칭이 시작됐고, 9일에는 김유신, 김현수, 정해영, 김재열이 불펜 마운드에 올랐다.

프로 데뷔를 준비하는 루키들로 '긴장감'이 넘쳤던 8일, 9일에는 '기대감'이 불펜에 가득했다.

먼저 공을 던진 좌완 김유신과 우완 김현수는 양현종이 빠진 마운드에서 선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특히 김유신은 상무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낯선 얼굴'인 만큼 윌리엄스 감독에게는 더 관심이 가는 피칭이었다.

이어 불펜피칭에 나선 정해영과 김재열은 지난 시즌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불펜에 힘을 보태줬던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선발 신인보다는 차분하게 또 강렬하게 자신의 공을 던지면서 윌리엄스 감독의 찬사를 받았다.

윌리엄스 감독과 선배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공을 던졌던 이의리는 "좋았다. 던지면서 좋아질 것 같다"고 첫 불펜피칭 소감을 밝혔다.

두 번째 시즌을 준비하는 정해영의 표정도 밝았다. 그는 "첫날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 감독, 코치님 주문이 표적이 많이 던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많이 들어가서 좋았다"고 언급했다.

하평캠프에서 시작해 광주로 이동한 김현수도



KIA 타이거즈의 김유신(왼쪽부터), 이의리, 정해영, 김현수가 9일 첫 불펜피칭 소감을 밝히고 있다.

"첫날치고 정말 좋았다. 표적이 많이 넣으려고 집중하려고 했는데 잘 된 것 같다. 올해 처음 공을 던지는 것인데 좋았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목직한 공인 장점인 김유신. 그의 공을 받던 김민식의 미트 끈이 끊어지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김유신은 "피칭 세계 할 생각이 없는데 옆에서 현수가 빠르게 던져서 힘이 들어갔다(웃음)"며 "아직

제구 감각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윌리엄스 감독은 선발 신인들의 피칭에 대해 "다들 괜찮았다. 처음하는 것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긴장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괜찮았다. 두 번째 던지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구들도 보여주면서 조금씩 좋아질 것이다"고 평가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